

2. 지역별 출하 및 가격 동향

구분	주별	7월		8월			9월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인천	도축두수	862	835	616	785	892	694	705	1,061	710	538
	경락가격	1,783	1,750	1,705	1,874	2,015	2,005	1,900	2,014	1,921	1,926
대구	도축두수	666	6,631	607	544	705	626	592	770	721	511
	경락가격	1,751	1,704	1,731	1,752	1,943	2,045	1,944	2,010	2,011	1,858
부산	도축두수	1,559	1,295	1,146	1,156	1,363	1,271	1,335	1,498	1,194	1,096
	경락가격	1,774	1,705	1,785	1,838	2,152	2,058	1,980	2,071	2,033	1,960
광주	도축두수	202	218	205	167	207	191	159	222	163	182
	경락가격	1,613	1,619	1,639	1,740	2,033	2,009	1,935	1,984	2,057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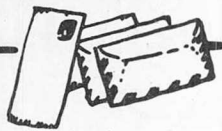
(주) 9월 3주는 20일까지의 평균치임.

가. 추석이 임박한 9월 1주부터 지방의 돼지 경락가격이 서울의 경락가격에 비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추석 직후에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9월 3주부터 부산을 제외한 인천, 대구, 광주지방이 서울

가격에 비하여 약세로 전환되었음.

나. 광주지방의 지육경락가격은 타지방에 비하여 아직도 등락율이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모니터 통신



전북지역 강은선 모니터

돼지고기 연동가격 인상조정

전북도내 정육점에서는 9월 7일부터 박피육(500g)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50원 인상 조정 하였는데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생체는 kg당 1,200원에서 1,25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자돈시세는 최고 45,000원 최저 30,000원으로 평균 37,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멧돼지에 농사피해

전북일보 8월 29일자에 따르면 남원군 아영면 구상리에 일주일 전부터 5~6마리의 멧돼지가 밤에 떼지어 다니면서 벼를 마구 헤집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요망된다.

27일 이 마을에 사는 이모 씨는(54) 멧돼지가 밤중에 떼지어 눈에 나타나 1천 6백 50㎡의 논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가족이 교대로 밤잠을 설치가며 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구마밭에도 멧돼지가 무리를 이루고 다니면서 마구 헤집고 다니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는 추수가 끝날 무렵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대구 지역 김노식 모니터

수요 늘어난 돼지고기 값 멋대로 올려받아

대구시내 정육점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소비 증대로 인해 경락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시중 정육점들은 고시가격을 무시, 값을 올려 받거나 질 낮은 고기를 섞어 팔아 소비자와 마찰까지 빚고 있다.

또한 지난 80년 3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돼지고기값 연동제도 시세에 민감하게 반영이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의 경우 지육경락가격이 1천6백 원선을 유지했던 돼지고기값은 최근 수요가 늘면서 경락가도 2천50원선으로 뛰었다.

그러나 출하물량은 평소보다 1백~1백50마리가 늘어 7백50두 정도 도살되고 있다.

경락가격이 오르자 시중 정육점들은 5백g당 고시가격 1천3백50원을 무시, 최근 1천8백 원까지 올려받고 비계를 끼워 팔고 있다.

또 일부업소는 수지가 안맞는다고 아예 지육 구입을 기피, 판매를 꺼리는 현상까지 빚고 있다.

식육업소들은 현 경락가로서는 5백g당 2천 원선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경락가격이 뚝에따라 현 5백g당 1천3백50원인 고시가격을 1천6백원선으로 이번주내에 인상할 계획과 함께 연동제를 폐지, 최고기처럼 신고 가격제로 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연동제에 의한 고시가 결정 시세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고 값이 묶여져 물량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 시세에 의한 연동제 고시가격은 15일에 1회씩 경락가 추세에 따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돼지고기 고시가 인상

대구시는 30일부터 돼지고기 가격을 현재보다 2백50원올린 5백g당 1천6백원으로 고시키로 했다.

고시가격인상은 지육경락가격이 지난 6월kg당 1천6백41원에서 최근 2천28원선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육류 수급원활을 위해 소, 돼지 출하량을 현재보다 40%이상 늘리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하루 평균 소 1백67마리, 돼지 9백57마리 출하계획량을 마련, 축협 도지부 산하조합에 물량을 할당, 출하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돈사에 강물 들어와 돼지 4백70마리 떠내려가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동 한경문씨 돈사에 위천강물이 들어와 돼지 4백70두가 폐사하거나 떠내려가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청주, 청원지부 최기숙 모니터 감사에 박근식씨 선출

청주, 청원지부는 8월10일 지부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열고 감사선출안과 수돼지 거세문제를 협의했다. 월례회의는 월말에 열 예정이었으나 이날 있는 사료공장 견학을 위해 예정보다 앞당겨 열렸다.

월례회의에서는 감사에 박근식씨를 보선하고 롯데 육가공공장에 수돼지를 원활히 출하하기 위해 비육 수돼지는 가능한 한 거세하기로 결정하였다.

월례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부부동반으로 인천 무지개 사료 공장을 견학했다. ◇

제19회 가축 품평회 개최

1984년 9월14일 청주 가축시장에서는 청원군 청주최로 청주, 청원 양돈협회, 청주축협, 청주낙협의 후원으로 가축 품평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양돈부문에서 청주 양돈협회 총무직을 맡고있는 유인종씨를 비롯, 청주축협의 신공식씨, 청주낙협의 박명환씨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순회심사를 했으며 당 협회의 김철수 회장은 양돈부문 시상식을 맡아 수여했다.

아울러 우수한 종돈을 보유하여 시상을 받은 사람은

강내면 김용진, 남성면 부경농산, 남일면 노경래, 남이면 김대봉씨가 상패를 수여 받았다.

